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0호 [무게 제25433호] 주제 105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라이왕국 왕세자에게 조전을 보내시었다

방코크

라이왕국 왕세자  
마하 바지라 통콘 전하

나는 라이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아에즈케가 서거하였다든 소문에 접하여 전하와 그리고 전하를 통하여 유가족들과 라이왕국 정부와 인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깊은 위문을 표합니다. 부미볼 아둘리아에즈케는 조선과 타이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키우며 여기고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부미볼 아둘리아에즈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궤하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과 친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5 (2016)년 10월 15일

평양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미국의 UPI 통신은 김정은병도자께서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병도자께서는 조선의 힘과 기술, 조선의 원로와 자재에 의거한 또 하나의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마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정공업공장들을 지식 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 며 원로,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들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첨단수준의 설비와 기술공급을 갖춘 현대적인 인민소비품생산 기지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김정은병도자께서는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물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전을 찍으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 민주중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포럼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이 맑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정상화문제, 설비수송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고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맞고도 일 좋은 생활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책임과 분담을 다하여서 기력과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전을 찍으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 《대공보》, 《문화보》, 방송위성TV방송과 타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중고주제사상연구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내시었다. 그이께서는 생산현장들의 무궁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을뿐 아니라 통합생산체제를 훌륭히 구축해놓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이 맑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정상화문제, 설비수송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고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맞고도 일 좋은 생활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책임과 분담을 다하여서 기력과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전을 찍으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 《대공보》, 《문화보》, 방송위성TV방송과 타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중고주제사상연구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혁명 인터넷포럼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라오스신문 《미엔리안 타임스》, 로스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로스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와 타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중고주제사상연구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 북변땅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로 영웅조선의 승리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 세상에 없는 복구기적을 창조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

### 20일 남짓한 기간에 1만 1천여세대의 소총, 단층살림집골조공사 결속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의 구절 구절을 펴 읽는 심정에 새기고 북부전선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힘있게 떨치자. 조선인민군 북부전선지구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5일 현재 북부전선지구 6개 시, 군에서 200여종의 소총 살림집들과 2500여종의 단층살림집들의 골조공사가 빛나게 계속되었다. 이 나날 살림집들의 외부, 내부 마감공사도 동시에 추진되어 작자 65%, 25%계선을 돌파하였다. 지난 9월 하순 본격적인 기초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1만 1천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낸 이 혁명적 전진속도는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군인대단정, 군인협동작전으로 인하여 자랑찬 승전보성으로서 10월

말까지 전반적인 살림집건설을 계속할수 있는 결정적결과를 얻어놓은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성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군 북부전선지구지휘부의 총일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 인민무력성과 사회의 책임 일꾼들은 인민군부대들과 각 시공단위들에 살림집건설과제를

명백히 분담하여 기초하여 세번 드, 장애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현장까지 전진공급하기 위한 수송전투에 첫째가는 힘을 넣었다. 북부전선 부대와 철도운수부문의 일꾼들과 수송원수들이 싸우는 고지에 총포탄을 실어나르는 심정으로 세번트하산능력과 철도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사발 같이 면치나선 결과 지난 10월 초부터 6개 시, 군의 살림집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평균 1만여 상의 세번트하 공급되었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백두산 혁명장군의 기상과 본래를 남김 없이 파시하여 자기들이 맡은 860여대에 440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계속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회맹전역에 달려온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역사의 땅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진시킬 때 국수주의 맹세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며 3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760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고 미장공사의 70%이상을 해체하였다. 조선인민군 김동훈소속부대, 홍철군소속부대, 장은원소속부대, 신봉철소속부대, 배호우 소속부대, 오봉진소속부대의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기초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총포성능은 격전을 치열하게 벌여 55대에 곧 1000세



대의 3층살림집지수를 형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연산군 읍지구의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이 불가능을 모르는 백두산혁명장군의 단숨에의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하여 16대에 504세대의 3층살림집골조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내는 쾌승을 이룩하였다. 남달리 불리한 기동으로 하여 다른 군들보다 현장에 늦게 전개하고 세번트를 비롯한 모든 물동들을 곧 200리나 떨어진 무악산의 철도역에서도 수송해야 하는 악조건에서도 괴영하소속부대, 주영철소속부대, 최승호소속부대, 유성철소속부대의 장병

## 학교와 유지를 비롯한 공공건물건설 적극 추진

### 조선인민군 공호식소속부대에서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은 지켜주기 위한 입실단결운동위원회의 제1선에 선 조선인민군 공호식소속부대의 장병들이 회맹시의 공공건물건설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있다. 작중하여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연건평이 6000㎡나 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학교와 유치원, 진료소의 골조공사를 빛나게 계속한 부대의 장병들은 지금 내의부미장공사, 지대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우리 혁명적 제일선에서 진척의 불꽃과 구름을 열어나기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물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인대단정의 위력을 높이 펼쳐야 한다.》 북부전선에서 전위부대의 기적창조를 위한 투쟁을 승피로 명도하시는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는 지난 9월 중순 학교와 유치원, 학교, 진료소를 비롯한 공공건물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긴 공호식소속부대의 장병들은 회맹시 오봉진구에서 새로 임피세우는 학교와 유치원, 진료소건설전투장에서 지력정열의 혁명정신이 강한 부대, 힘있는 부대의 전투력파워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회맹전투를 비롯한 정치일꾼들은 군인대중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현수님의 후대사상,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을 깊이 심어주면서 그들이 입당배혁명장군의 본분을 힘있게 면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펴고있었다. 부대, 구분대단위로 당원들의 정치, 청년동맹원들의회의를 열리고 수령기풍과 군인대단정의 위력을 높이 펼쳐야 한다.》 북부전선에서 전위부대의 기적창조를 위한 투쟁을 승피로 명도하시는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 열흘사이에 17기의 송전탑을 세웠다

### 전력공업부원 일꾼들과 로동계급

회맹시회복구전투에 펼쳐 나간 전력공업부원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불과 열흘사이에 17기의 송전탑을 임피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과 인민의 부름앞에 달려서 대담한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내다고 실천으로 대담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함북도 북부지역을 휩쓴 관동로 하여 회맹시의 전력공업부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무단장기슭에 있는 한 번전소가 불에 잘기고 17기의 송전탑들이 파괴되어 회맹시와 북부지구 전력공급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함북도 북부지역회복구전투에서 전위부대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열렬한 호소는 전력공업부원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도르가 파괴되고 통신이 끊어

진 조건에서 전력공업부의 책임 일꾼들은 하루에도 100여명의 젊은이 전력공업계통피해지역을 구제적으로 료해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전지에서 재해지역들과 피해지구전투장들을 전기기를 긴급히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파괴된 전력공업계통을 복구하기 위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3일만에 회맹시의 모든 단위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재개할수 있었다. 성일군들은 성일군의 송전계통을 원상대로 재구성 임피세우기 위한 다음날의 작전과 지휘를 더욱 구체적으로 짜고쳤다. 성일군 작전에 따라 많은 량의 전선과 애자를 실은 여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재해지역으로 편이 들어갔다. 성에서 는 내부에비해 최대한 통원하여 10여기의 송전탑을 제작하기 위한 긴급전투도 조직되었다. 성의 지도밑에 송전건설사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자강력

# 《 ㄹ. ㄷ 》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 위대한 당의 역사인 뿌리

지 멀리 화전의 언덕에서 우리 당의 뿌리이고 혁명의 만년초석인 《 ㄹ. ㄷ 》가 건설된 때로부터 어느덧 90년 세월이 흘렀다.

류수검은 세월속에 산천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 ㄹ. ㄷ 》의 기치는 오늘도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앞길을 휘황히 밝히고있다.

그 성스러운 붉은 기폭아래 걸친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가.

우리 당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며 주는 당창건기념탑이며 온 누리를 환히 밝히는 주체사상탑의 봉화, 대동강만물 따라 줄이하게 일떠선 현대적인 일일정기마을이며 당 제 7차 대회 결집관람을 위해 활짝은 시대의 역진 술잔...

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은 조용히 결성되었다.

그때까지도 세상사람들은 아직 《 ㄹ. ㄷ 》의 탄생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혁명조직을 결성하는 뜻깊은 모임에서 먼저 《제국주의를 라도하자》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만일에 국사상과 선진사상으로 무장시켜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대내외적 조직적으로 결속력 대대 연금하면서 그리자면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조직을 먼저 내외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조직의 명칭은 그 사명에 맞게 《라도제국주의동맹》으로 하며 약칭은 《 ㄹ. ㄷ 》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최중요적으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일본 제국주의를 라도하기 위한 판교비싸움의 선봉이며 지구상 모든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선언이었다.

유구한 인류역사가 새겨 온 위대한, 영원한 어느 길에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그 시기에 이치럼 비범한 천리마의 예지, 거창한 포부와 비상으로 웅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충실한 주체주의 혁명전위조직을 창설하시어 자주의 기치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친 위인이 기록된적 있었는가.

그때 《 ㄹ. ㄷ 》결성모임에 참가했던 성원들중의 한사람인 김원우동지는 후날 이렇게 회고하였다.

《일제와의 판교비싸움을 선포하고 지구상 모든 제국주의의 대항을 선언하며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는 바로 이 역사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동맹원장장으로, 우리 혁명의 명수로 높이 추대하였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전수로 모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그때의 감격을 나는 평생 가슴에 안고 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 거지는 역사적의의는 비할바없이 큰 것이었다.

《 ㄹ. ㄷ 》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주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 ㄹ. ㄷ 》의 결성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 ㄹ. ㄷ 》의 강령은 우리 당 강령의 기초로 되었고 《 ㄹ. ㄷ 》내에는 자주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었으며 《 ㄹ. ㄷ 》가 키

워대기 시작한 새 세대 혁명가들은 우리 당창건의 광간으로 되었다.

뿌리가 있어 줄기가 자라고 잎과 꽃이 피어 열매맺듯이 조선로동당이 라는 거목은 떠날은 역사 뿌리 《 ㄹ. ㄷ 》가 있어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생명력을 지니고 필승불패의 무한사를 장엄하게 수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날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고 조국광복회가 태어나 2천만의 용동원을 소비하여 해방 때 그리고 그대항을 수천수만의 지지자, 동맹자들이 위성처럼 둘러싼 혁명의 전진기가 도래하였을 때 《 ㄹ. ㄷ 》를 조직하던 때를 감개무량하게 회상 하였고 회상 하시었다.

우리 당은 《 ㄹ. ㄷ 》의 비범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보성과 정화는 언제나 정확 하였으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토지개혁방침과 농업협동화방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비롯하여 새 땅우부러 이어나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어느것이나 《 ㄹ. ㄷ 》의 비범에 뿌리를 둔것으로 하여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 ㄹ. ㄷ 》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은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아래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었으며 백전백승의 위력을 떨치었다.

일제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명을 시작하던 첫 시기에 벌써 《 ㄹ. ㄷ 》에서 시작된 우리 당기일의 역사에 대하여 밝혀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이끌어온 줄은 결성을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 ㄹ. ㄷ 》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의 혁명적당이라는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을 조선로동당의 뿌리인 《 ㄹ. ㄷ 》에서 아슬처럼 자주적인 혁명정신을 지닌 인민으로 훌륭히 키워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건설사에 쌓으신 커대한 업적이다.

《 ㄹ. ㄷ 》의 기치가 휘날리기 시작하여 90년!

얼마나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역사인가.

《 ㄹ. ㄷ 》가 추켜든 자주의 기치, 단결의 기치는 혁명의 세대가 바뀌어지고 온전한 시편을 세쳐오는 나날에 혁명의 전진에서 언제나 힘차게 나뒹가였다.

위대한 전통은 위대한 계승으로 더욱 빛났다.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오가는 혁명적당으로, 수령님들의 사상적지대로 전당이 슬취고 움직이는 전진로동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신 정애하는 원수님의 검술하고 세련된 명도를 만나 우리 당의 존엄은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주체의 혁명은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건히 하여가 시기에 변함없이 고수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되어왔다.

《 ㄹ. ㄷ 》에서 역사적뿌리가 내린 우리 당은 정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아래 선군의 용대를 뽐이던 위대한 당으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나날이 장성강화되고있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은 90년전 화전에서 하오온 《 ㄹ. ㄷ 》의 불길은 더 활활 지펴가시는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정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우리 선군과 인민은 앞으로 또 정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며 《 ㄹ. ㄷ 》에서 시작되고 뿌리내린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10대에 품으신 뜻

주제 15(1926)년 6월 어느날이었다.

화성의숙에 입학하여 첫날 수업일을 마친 뒤엔 수령님의 주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독립운동가들에서 추신되어 온 20대의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어떻게 되어 어리신 나이에 독립군생활을 하였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독립군에 들어가본 일이 없으며 앞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면 이러한 생애의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학생들에게 배양된 조국을 찾는 일에 한몫

바쳐 나서려고 화성의숙에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방문전까지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을 어떤 독립군으로만 생각하였던 의숙생들은 그의 끝없는 강인한 의지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할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

정집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품으신 뜻은 이렇듯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원대한것이였다.

동지혁득의 첫 자욱

화성의숙의 학생들속에는 리가상을 가진 한 학생이 있었다. 조선인모범소학교 고등반 학생들과의 추수시합에서 무상을 얻은 그 학생을 찾아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자와 함께 침식을 같이하시며 그가 빨리 완쾌되도록 온갖 지성을 다 하시였으며 창다른 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심정에 대하여 동지 찬평을 열

90년전 우리 당의 뿌리가 마련되던 그날 화전의 위팔강변에서 《 ㄹ. ㄷ 》의 첫 성원들이 환희에 넘쳐 그리워하던 때일기 바로 오늘이 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는가. 위대한 태양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이 목청껏 퍼지던 만세소리가 오늘날도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이 땅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치고 있다.

위대한 명도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투쟁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 결구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어왔다.》

라도제국주의동맹!

조용히 불려보노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머쥔 비바람의 넋을 한몸에 안고서고 새형의 혁명조직을 건설하시던 주제 15(1926)년 10월 17일 그날의 감격이 소중히 안겨준다.

《 ㄹ. ㄷ 》의 결성장소는 요한한 회의장이 아니었다. 연약자도 없었나. 화전의 작은 집, 수수한 온돌방에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정리부》 《인민부》와 하는 각양각색의 단체가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전내에도 사대주의에 불응하여 《화요파》 《영일파》 하는 여러파가 파파서적파와 강도전쟁파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제국주의라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직의 명칭으로 하였으며 약칭까지도 손쉬운 조선말 자유인 《 ㄹ. ㄷ 》로 명명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의하여 민족의 역사를 그대어 자기의 흠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라는 사면과도 같았다.

모임장가자들은 이미 예비회의에서 들은바 있지만 정작 조직결성모임에서 그 명칭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심원한 언거와 승평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는 모임장가자들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라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혈연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 위대한 명도와 김정일동지의 명제해설 | 《 ㄹ. ㄷ 》가 이룩한 단결의 전통을 이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제에는 《 ㄹ. ㄷ 》가 이룩한 일심단결의 전통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 만년초석으로 묶어주고 군대에 대한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단결로 개혁되고 전진하며 승리하는것이 혁명이다. 《 ㄹ. ㄷ 》의 전통이 있어 우리 당이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천만군민이 수령의 두리에 철봉같이 굳게 뭉쳐 투쟁해나가는 주체주의 혁명가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 ㄹ. ㄷ 》는 단결의 전통이고 우리 혁명의 핵심의 기치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일심단결의 근본력이다.

해이 없는 물결이 없었고 마한가지도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근본 원인이 있다.

《 ㄹ. ㄷ 》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단결의 시련을 열어놓은 전위조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상위인성에 배후되어 《 ㄹ. ㄷ 》의 전위투사들은 수령님의 두리에 철봉같이 뭉쳐있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누러져 붙는 불이 되고 철대를 바스는 바지가 되었다.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려양이시라는 《 ㄹ. ㄷ 》의 열혈투사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위대한 전통을 꽃피어 이어나가는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사적 투쟁해나가고있다. 정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봉같이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는 《 ㄹ. ㄷ 》의 한발이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천만군민이 수령의 두리에 철봉같이 굳게 뭉쳐 투쟁해나가는 주체주의 혁명가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 ㄹ. ㄷ 》는 단결의 전통이고 우리 혁명의 핵심의 기치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일심단결의 근본력이다.

해이 없는 물결이 없었고 마한가지도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근본 원인이 있다.

《 ㄹ. ㄷ 》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단결의 시련을 열어놓은 전위조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상위인성에 배후되어 《 ㄹ. ㄷ 》의 전위투사들은 수령님의 두리에 철봉같이 뭉쳐있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누러져 붙는 불이 되고 철대를 바스는 바지가 되었다.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려양이시라는 《 ㄹ. ㄷ 》의 열혈투사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위대한 전통을 꽃피어 이어나가는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사적 투쟁해나가고있다. 정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봉같이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는 《 ㄹ. ㄷ 》의 한발이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천만군민이 수령의 두리에 철봉같이 굳게 뭉쳐 투쟁해나가는 주체주의 혁명가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 ㄹ. ㄷ 》는 단결의 전통이고 우리 혁명의 핵심의 기치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일심단결의 근본력이다.

해이 없는 물결이 없었고 마한가지도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근본 원인이 있다.

《 ㄹ. ㄷ 》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단결의 시련을 열어놓은 전위조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상위인성에 배후되어 《 ㄹ. ㄷ 》의 전위투사들은 수령님의 두리에 철봉같이 뭉쳐있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누러져 붙는 불이 되고 철대를 바스는 바지가 되었다.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려양이시라는 《 ㄹ. ㄷ 》의 열혈투사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위대한 전통을 꽃피어 이어나가는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사적 투쟁해나가고있다. 정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봉같이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는 《 ㄹ. ㄷ 》의 한발이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천만군민이 수령의 두리에 철봉같이 굳게 뭉쳐 투쟁해나가는 주체주의 혁명가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 ㄹ. ㄷ 》는 단결의 전통이고 우리 혁명의 핵심의 기치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일심단결의 근본력이다.

해이 없는 물결이 없었고 마한가지도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근본 원인이 있다.

《 ㄹ. ㄷ 》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단결의 시련을 열어놓은 전위조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상위인성에 배후되어 《 ㄹ. ㄷ 》의 전위투사들은 수령님의 두리에 철봉같이 뭉쳐있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누러져 붙는 불이 되고 철대를 바스는 바지가 되었다.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려양이시라는 《 ㄹ. ㄷ 》의 열혈투사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위대한 전통을 꽃피어 이어나가는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렬사들께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긴 친필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장군자들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그것은 온 민족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는 민족원들의 공통된 심리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과 결속의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의 어버이의 애국, 애족, 애민의 빛나는 한평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 ㄹ. ㄷ 》를 결성하시던 시기에 있는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하는 숭고한 리념

민족의 독립을 위해 단결을 운운하며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서 자기 주체의 지지자들만 더 많이 그러므로 위한 것이었고 민족의 세력확대를 위한 당리당략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강도 입체를 라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천민이 굳게 단결해야 하였다. 그러자면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과 결속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하였다. 그것이 바로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바로 이 말에는 그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을 향한 민족주의의 애정없는 감탄과 찬사도 깃들여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의하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로 무건된 《 ㄹ. ㄷ 》야말로 정진으로 민족을 위하는 첫 애국적혁명조직이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야말로 천민들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은 독립시키는 주리라면 나는 민족주의, 공산주의의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는 무성공해.》

본사기자

바로 이 말에는 그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을 향한 민족주의의 애정없는 감탄과 찬사도 깃들여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의하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로 무건된 《 ㄹ. ㄷ 》야말로 정진으로 민족을 위하는 첫 애국적혁명조직이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야말로 천민들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은 독립시키는 주리라면 나는 민족주의, 공산주의의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는 무성공해.》

본사기자

바로 이 말에는 그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을 향한 민족주의의 애정없는 감탄과 찬사도 깃들여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의하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로 무건된 《 ㄹ. ㄷ 》야말로 정진으로 민족을 위하는 첫 애국적혁명조직이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야말로 천민들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은 독립시키는 주리라면 나는 민족주의, 공산주의의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는 무성공해.》

본사기자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받들어갈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당창건기념탑에서-

### 통일 단결의 첫 세대

통일단결을 목숨바쳐 사수하여 다음세대의 혁명가들에게 귀중한 제보로 남겨준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이었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서 내기 검쳐, 차광수, 최상길과 같은 사람들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하는것은 그들이 내에 대한 노애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주시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보기도 싶었던 젊은 혁명적 청년들이었다.

조선혁명의 첫 세대의 위대한 장군님, 우리 인민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명도자와 대항의 일심동맹을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역사를 펴르며 개척한 선구자들이기때문이라고 김원우가 추억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첫세가는 공적이 바로 기적이 있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되고 혁명가가 되었고 통일단결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승호라고 이름라운 것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었다고 감동깊이 쓰시었다.

조선혁명의 1세대인 열혈의 청년혁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룩한 통일단결! 이 위대한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혁명명령들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명도아래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통일단결의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셔 더욱 굳건히 고수되고 역력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일제기 자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본뜬의 불이였다고,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일심단결의 터전에서 빛을 뿌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끊임없는 실험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

명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굴의 헌신사를 수놓고 인민은 명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러만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고 고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통일단결의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셔 더욱 굳건히 고수되고 역력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일제기 자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본뜬의 불이였다고,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일심단결의 터전에서 빛을 뿌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끊임없는 실험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

명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굴의 헌신사를 수놓고 인민은 명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러만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고 고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통일단결의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셔 더욱 굳건히 고수되고 역력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일제기 자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본뜬의 불이였다고,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일심단결의 터전에서 빛을 뿌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끊임없는 실험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

명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굴의 헌신사를 수놓고 인민은 명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러만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고 고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우리

#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다

## 결성 90돐에 즈음하여 투사들이 워친 한별만세 오늘도 메아리친다

노래 《높이 들리라 <에. < >의 기발》과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을 부르며

우리 당의 전투적요소를 받들고 함복도 북부비해북부전선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동맹전을 벌이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기다란 기쁨과 감회속에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을 맞이하게 된다.

<에. < >가 결성된 때로부터 근한세기의 세월이 흘렀고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에. < >가 내세운 숭고한 리념과 결연한 투쟁정신은 오늘날도 우리 친안군민의 심장마다에 역세게 맥동하고있으며 대오앞에 펼쳐이는 기발마냥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위대한 명도와 김철열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에. < >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입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울 때에 10대의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전연대결을 선포하시며 결성하신 라도제국주의동맹.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조선의 혁명가들이 영원히 물러가지 않아가 할 전투적기치인 <에. < >의 투쟁강령을 반영한 노래가 10월의 하늘까지 울려지고있다.

갑갑한 누리에 불어 불인가 향아에 떠오른 <에. < >의 기발 깃발엔 겨레 불타일으켜 조선혁명 세 길로 나가게 하세 깃발엔 겨레 불타일으켜 조선혁명 세 길로 나가게 하세...>

불꽃속을 힘과 용기가 솟구치는 이 노래가 바로 주제 70(1981)년

에 작곡된 노래 《높이 들리라 <에. < >의 기발》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닳아 파가 구멍이 뚫린 1920년대는 암흑의 년대였다. 일제놈들에게는 온갖 잔인한 폭행과 고문, 학살을 가하며 피를 흘려야 했고 살길을 찾아 이역방방 헤매야만 하였던 우리 인민이었다.

이러한 때인 주제 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세 세대의 열혈동지들과 함께 <에. < >를 결성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에. < >의 당헌과당규는 일제식민지통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전진시키는것이였다.

<에. < >의 투쟁강령은 갑갑한 누리를 밝히는 화불이였으며 바야흐로 우리 겨레가 간직하게 될 신장의 불이었다.

<깃발엔 겨레 불타일으켜 조선혁명 세 길로 나가게 하세>라는 노래의 구절이 우리 수령님의 노심으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선각자도 애국지사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힘, 인민의 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은 메워지지 않았다.

혁사의 뼈저린 교훈을 통찰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필사같이 믿으시고

전적으로 의탁하신 전지전능한 존재는 과연 누구였는가. 인민이었다. 그 인민은 책적의 총칼도 두려움없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험준해나가던 3.1인민봉기자들이였으며 이역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굶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조선독립을 위해서라면 절세산도 주저없이 내놓는 진실하고 강직한 인민이었다. 지난날 흥건의 학정과 집착속에 신용하면서도 불의를 만대하여 절연히 나섰고 나라를 위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 길을 열어놓은 사변일뿐아니라 그 길을 앞장서 개척해갈 기술들의 뜻깊은 출정식과도 같았다.

...> 영명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우리의 힘으로 나라찾으리 이 기발 높이 일제를 치고 3천리에서 세세상 세워나가자 이 기발 높이 일제를 치고 3천리에서 세세상 세워나가자

<에. < >의 결성은 요란하지 않았다. 언약도 없는 수순한 온돌방에

서 결성모임은 조용히 진행되였다. 그러나 역사의 그날 흥분과 희열에 넘쳐 일떠들 도란한 열혈투사들의 가슴에는 영명의 주인은 우리들이라는 신념이 백동치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은 요란하지 않았다. 언약도 없는 수순한 온돌방에

세 세기의 빛나는 한별 용사들을

부른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 대중의 힘은 무한하다 겨레의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위해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은 요란하지 않았다. 언약도 없는 수순한 온돌방에

세 세기의 빛나는 한별 용사들을

위험을 끝없는 매혹과 신뢰심으로 끌어안지 않게 하였다. 그 나날 혁명시인 김혁은 혁명 《조선의 별》을 창작하였으며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온 겨레의 마음을 담아 우리 수령님을 태양의 존엄으로 높이 우러르시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은 요란하지 않았다. 언약도 없는 수순한 온돌방에

세 세기의 빛나는 한별 용사들을

노년초시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 멀리 희원의 언덕에서 높이 추켜 올리였던 <에. < >의 기치는 오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진길에 더욱 힘차게 나뉘고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은 요란하지 않았다. 언약도 없는 수순한 온돌방에

세 세기의 빛나는 한별 용사들을

###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이던 나날에 인민들이 수령님의 명도 밑에 조직정령된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풍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일러오던 말이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이던 나날에 인민들이 수령님의 명도 밑에 조직정령된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풍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일러오던 말이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이던 나날에 인민들이 수령님의 명도 밑에 조직정령된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풍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일러오던 말이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이던 나날에 인민들이 수령님의 명도 밑에 조직정령된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풍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일러오던 말이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이던 나날에 인민들이 수령님의 명도 밑에 조직정령된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풍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일러오던 말이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이던 나날에 인민들이 수령님의 명도 밑에 조직정령된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풍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일러오던 말이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바람》,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 < >》를 결성하신 후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이던 나날에 인민들이 수령님의 명도 밑에 조직정령된 세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풍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일러오던 말이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수필 《에. < >》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난일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은 《에. < >》의 리념으로부터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불변의 기치로 들고나가고 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수필 《에. < >》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난일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은 《에. < >》의 리념으로부터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불변의 기치로 들고나가고 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수필 《에. < >》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난일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은 《에. < >》의 리념으로부터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불변의 기치로 들고나가고 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수필 《에. < >》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난일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은 《에. < >》의 리념으로부터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불변의 기치로 들고나가고 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수필 《에. < >》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난일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은 《에. < >》의 리념으로부터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불변의 기치로 들고나가고 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수필 《에. < >》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난일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은 《에. < >》의 리념으로부터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불변의 기치로 들고나가고 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수필 《에. < >》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난일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은 《에. < >》의 리념으로부터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불변의 기치로 들고나가고 있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결성, 이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전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용맹개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에. < >》의 전통을 이어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역사 끝없이 빛내여가리  
본사기자 정순애 특필



# 전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결사항전에 총분기하자

##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 소 문

전체 국민들이여!  
지금 이 땅은 유사이래 처음 보는 민족과 미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피악을 당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적절인 투쟁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민권의 소결인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물러있는 서울은 물론 부산과 광주, 성주와 김천 등 정권각지에서 투쟁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 등 요구하는 우리 민중의 투쟁이 이번처럼 노동자와 농민, 종교인을 비롯한 각이한 계급, 계층이 참가하는 전국민적대중투쟁으로 벌어졌는지 묻지 않아도 된다.  
이 거세한 항거의 선두에 살인적인 노동정착으로 근로자들의 명줄을 조이는 보수세력들 전진과 후퇴가 없이는 우리의 의욕과 용감한 노동자들이 아니다.  
7월-9월 총파업에 이어 10월 총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금융노조와 건강보험노조, 교원노조와 병원노조 등의 수많은 노동자들과 공무원은 노동쟁의와 대항해고로 돌아오는 보수당국의 성과인 노동계급을 전진시키려는 투쟁을 견디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살인정권을 반대하는 전국학생연맹총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투쟁기세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다.  
80여개 지역에서 서울에 올라와 생존권보장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수천명의 농민들은 성과로 육박하는 등의 대규모투쟁으로 위정각자를 전멸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집회에서도

부지마지한 경찰장악들이 민사하는 불대포적사살수에 맞아 종래에 싸웠다가 끝내 숨진 백남기농민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각계층의 반 《정부》 합성도 누비를 진감하고 있다.  
보라! 백남기농민을 죽여야 돌아오는 민권투쟁을 지지하고서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사죄할 대신 부검명장을 거부 발부하하고 고인의 시체를 포사시 칼질하려는 박근혜정권의 횡포무도한 악재를.  
백남기농민의 명복을 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가족들과 국민들이 슬며시 여지도 없이 시신을 말려하여 판도집하려는 인간야수의 무지무도한 광기에 실연초록도 분노에 지를 떨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기법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40여개의 《대북협력업체》들과 각종 민중들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국에 빠뜨린 보수세력에 대한 치맛은 지주와 율분을 안고 결연히 투쟁의 광장에 펼쳐나섰으며 성주와 김천을 비롯한 전역에서 《싸드》 배치반대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도처에서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반 《정부》 투쟁의 불길은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악행과 부패무능, 천시태도와 동족대립정책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전국민의 항거와 의지의 파급한 분출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전역에 파국을 이끄는 대북적항행이 무엇때문에 날로 확산되고있는지 숙고하고 저들의 반역적악행을 자책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대신 도리어 《국론분열과 혼란》을 운운하며 우리 민중의 의로운 항거를 모독하고있는가 하면 《비상사태》를 고대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압할 과격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

보수당국에 다시금 원명하건대 오늘날 남으로 가림없이 항쟁의 거리를 펼쳐나서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일당이다.  
집권후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살인적인 노동정책과 반민중적악행, 파멸적인 《유신》 부패책동과 일상화된 귀족같은 살인행위는 우리 민중의 용분과 분노를 무적시켜 오늘과 같이 항쟁의 불을 달게 하였다.  
들어보면 박근혜가 권력에 올랐고 있는 후 《국헌행복시선》, 《민생안정》 이니, 《홍익대학》 이니 하는 빛좋은 광고를 내걸고 그 얼마나 민심을 우롱거만하였는가.  
그러나 집권때부터 한것이 아닌 땅을 사들인 인간장악적으로 만들고 백전백승이 엄습하는 의세의 각축전장으로 내몰렸건만이다.  
《청년일자비정상》을 떠들면서 오히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자를 광산하고도 모자라 서민들을 끊임없이 곤혹시키고 저임금, 무직난에 시달리게 만든것도 그리고 《복지》의 간판을 내건 반민중적악행으로 이 땅을 사상 최악의 빈곤층,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암흑천지로 전락시켰도 보수당국이다.  
《세월호》 참사도 유가족들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때로부터 지난 6개월동안 살인자책문을 요구하는 각계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공권력을 투입하여 말살하려고 광분한것도 바로 박근혜일당이다.  
과격투압과 부정부패는 동전의 양면이다.  
앞에서는 《정밀정적》과 《깨끗한 정치》를 운운하고 돌아다니는 구면은 온갖 부정부패와 무능을 일삼는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저주와 환멸은 더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신》 독재자 박정희역도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최저성계에도 마련할수 없어 기아와 민중에 시달릴 때 온국민을 만들고 대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댄아주며 여대의 자금을 무장착복하면서 퇴임후 제살공비에만 미처돌아왔다.  
지금 커다란 사회적불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프링재단은 박근혜일당에 친하여 더러운 정수부들의 창조, 물도 없는 정치협박군이라는것을 다시금 날이거 고발해 주고 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의 《싸드》 배치행동은 또 얼마나 민사함의 치맛은 분격을 자아내고 있는가.  
《한》만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영호위 위협하는 《싸드》라는 괴물이 민심에 대한 약탈한 도끼로 우리 민중을 정치는 고사하고 백전백승의 참화를 불쓰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간판적인 《안보외교》 타령을 늘어 놓으며 위협천만 《싸드》를 끌어들이려고 기를 쓰고 발광하고 있다.  
원거하자면 끝이 없는 박근혜 《정권》의 천만가지 최악은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민심에 대한 약탈한 도끼로 우리 민중을 정치는 고사하고 백전백승의 참화를 불쓰게 한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에서 이 땅의 역사 사와와 미국, 반민중적악행과 과격투압으로 얼룩져왔지만 오늘날처럼 치마두른 악녀의 투쟁으로 민중과 최악에 이르고 전성위기가 극한점에 다다른 때는 없지 않았다.  
오만과 독선, 불통과 전횡, 무능과 무지의 저주받은 대명사인 박근혜가 청와대에 파리를 끌고있어있는 한 우리 민중은 더욱더 도탄에 빠져들수

밖에 없고 동족대립의 악순환속에 초래되는 참혹한 백전백승의 재난을 면할수 없다.  
현 시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민중의 적이고 제압의 최강인 박근혜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전국민이 한사발같이 펼쳐나설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오늘 각지에서 떠오르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은 단숨에 생존권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민중에 온갖 불행과 고통, 전횡과 파벌을 강요하는 박근혜정권을 시대와 역사의 이쁨으로 단호히 매장하려는 정의의 불길이며 정의의 불길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이미 저쳐올린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하게 타탄시켜 하여 민역의 무릎을 막사의 쓰레기장에 치막기 위한 권가피투쟁에 총분기해야 할 때이다.  
전체 국민들이여!  
박근혜 《정권》이 하루, 한시라도 더 연명한다면 그만큼 우리 민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가중되게 된다.  
박근혜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과격적항쟁에 총분기하자!  
노동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신종노예제도로 인성판공제를 단호히 짓봉해버려라!  
악덕업주의 온주머니만 벌취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감각과 대항해고로 돌아오는 박근혜의 노동정책을 노동계급의 무리마치로 반살하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성과년봉제는 무지무능한 친하의 저질파자 박근혜에게 도입하여 청와대에서 즉각 폐지시켜라!  
4대계급인 《4대주거개혁》을 단호히 배격하고 야만정권을 박멸하자!  
농민들이여, 전대미문의 살인정권으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키는 박근혜 《정권》을 깔아엎고 우리의 손으로 농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매국적이고 농민학살적인 미국산 쌀수입해방을 결사항전으로 막아내라!  
청년들이여, 청춘과 미래를 죽이는 이 땅의 대명사인 저주받은 《열조세선》, 《N로세대》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박근혜투쟁의 선봉에 서어나오라!  
청년들이 힘을 합쳐 민주와 통일의 앞길을 열어라!  
여성들은 남녀차별, 임금차별로 너정권시대를 끌어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전국민적항쟁에 과감히 동참하자!  
종교인들은 종교성지마저 의세의 군사기지로, 핵타격의 파노미로 만들려는 사악한 박근혜정권의 저주와 불가마에 처넣기 위한 정의의 불길에 파격히 분기하자!  
지금 박근혜정권은 저들의 슬픔을 조이는 우리 민중의 투쟁기세를 가파르고 심각한 총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슬로로 국한한 동족대립과 복원정적행동에서 벗어나서 최후발악하고 있다.  
전국민은 민의에 역행해 가이여 이 땅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친미사대매국적정권 박근혜정권을 력사의 쓰레기장에 매장하자!  
국민의 힘으로 《싸드》 배치 막아내고 평화와 안전을 지켜가자!  
《안보외교》장사로 《싸드》 배치를 합리화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슬픔을 단호히 끌어버려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평화와 자주통일

을 위한 정의의 애국성정으로 승화시키자!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고 6.15 시대를 부활시켜 통일과 번영의 세상을 만들어라!  
조직력과 단결력은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일이다.  
민주권리와 생존권, 계층의 속원인 자주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급과 계층, 당파와 소속, 정권과 신당의 차이가 따로 있을수 없다.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성과년봉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정책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보장 등 우리 각계층 근로민중이 바라는 민주주의와 생존권, 전국민이 반대하는 《싸드》 배치도 모두 박근혜 《정권》을 물리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경찰각지에서 벌어지는 대중적투쟁을 박근혜 《정권》이 쫓겨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밀러나가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민중은 소속단체와 지역을 초월하여 연대연합과 광범행동을 과감하게 전개하자!  
우리의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당국의 과격적탄압행동을 전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분쇄하자!  
승리는 온갖 불의를 박차고 용기있게 정의를 투쟁에 한사발같이 펼쳐나선 우리 민중에 있다.  
결사항전으로 반박근혜투쟁에 총분기하여 예측과 끝론, 착취와 억압이 없고 사대매국이 청산된 근로민중의 참정사상, 삼천리강국이 하나되어 번영하는 통일강국의 세상을 하루빨리 만들어라!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16년 10월 15일 서 울

### 첨예한 서해 열점수역에서 《선제타격》의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괴로워하고 있는 군 사 적 도 발 행 동 감 행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가 최대로 긴장적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피군부초전행들이 서해 열점수역에서 우리측 수역에 대한 해상침범행위를 제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달에 들어와 매일 같이 감행되는 피피군부초전행들의 악랄한 해상침범행위는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계속되었다.  
피피군부초전행들의 해상침범행위는 이날 새벽 4시에 피피군부초전행들의 침범행위와 민간인선 9척을 우리측 해상군사문제선 북쪽수역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 시간순으로 침범과 정선, 기동 등 동반하여 우리측 수역에서 돌아다니는 도발자들은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군사적대응기동에 집합하여 황급히 뱃속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는 기회를 보아마다 또다시 우리측 수역을 침범하는 군사적행동을 저질렀다.  
14일 하루동안에 하여도 피피들의 우리측 해상침범행위는 무려 5차례 되었다.  
제단식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남조선피피군부초전행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서해 열점수역의 정세는 언제 군사적행동이 일어날지 모를 위기일박의 상황에서 분분초조가 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피피군부초전행들의 해상침범행위와 백병도와 영토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수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피해군전투함선은 물론 민간인선 수시척을 때지어 우리측 수역에 내보내는 식으로 군사적도발을 확대하고 있다.  
해상침범행위는 무인정찰기 《예문》을 비롯한 피피군부초전행들까지 합세하여 기습을 부리고 있다.  
서해 열점수역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해상침범행위는 정태와 피피군부초전행들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른 것이다.  
머릿집 박근혜역도는 영토도격침을 《북도발》로 매도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응징》을 부르짖으면서 피피초전행들을 동족대결로 부추겨왔으며 이에 따라 피피해군함포총장을 비롯한 군부우부대원들이 저침대기로 서해 열점수역을 돌아다니며 《단호한 응징》이니, 그 누구의 《투명》이니 하며 호전적광고를 부러웠다.

서해 5개 섬의 피피군부초전행이 지난 시기의 《방어행위》로부터 공격행위로 재편된 가운데 최근 미제침략군 3해병전진부대의 해병대원들이 피피군과 아합하여 우리측 서해 열점수역을 계속격격하기 위한 살인행위를 벌여놓은 듯도 다분한 백병도와 영토도격침은 어떤 광개전 사실이다.  
서해 열점수역에서 감행되고 있는 남조선 피피들의 광기어린 군사적도발의 목적은 불

법무부의 《북방위계선》을 고수하며 어떻게 하나 군사적행동을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의 자위적대응을 유감시키고 이를 구실로 극히 무모한 《북진선제타격》을 실현해보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지금 조선시해에서는 미제침략군의 악명높은 《로널드 레간》호적함공함타격단을 주축으로 하는 해적집단이 우리의 최후수비대와 주요인적대상물들을 《신제타격》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16를 벌여놓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각국이 첨예한 서해 열점수역에서 군사적행동을 벌여오고 있다. 《북진선제타격》의 기회를 조성할수 있다고 보는것이 도발자들의 흉악한 속심인 것이다.  
과연 어리석은 망상, 가소로운 흥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 군대는 이미 서해 열점수역을 침략자, 도발자들의 첫 무덤으로 만들어놓겠다는 성명적의지를 내외에 천명해 왔다.  
남조선피피들이 아무리 고수해오려고 할 때에도 《북방위계선》은 도발자들의 명줄을 조이는 축성의 계선으로 필경이 서해 열점수역을 계속격격하기 위하여 단대결행위자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리는 악몽의 지옥으로 필경이다.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남조선에서 우심해지는 야만적인 어린이학대행위는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치가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대담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남조선에서 어린이학대행위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얼마전 피피국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남조선에서 12살미만의 어린이 197명이 살해당한것을 비롯하여 어린이학대사건수가 총 4만 999건에 달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그 수가 1만 1715건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11년에 6 08건이었던 어린이학대행위가 박근혜당이 집권한 이후 2배가까이 증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중에는 부모들이 아이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자식을 때려죽이거나 아픈 머리 죽인 다음 신에 묻어버리는 끔찍한 살인범죄행위들도 있어 만사함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5살이하의 어린이들을 보육한다는 《어린이집》 등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각종 어린이학대행위가 1만 6780여건으로 시 2012년에 비해 2배 2-3배 늘어났다고 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보육원들이 겨울철에 어린이들을 발가벗겨

밖에 내몰거나 입에 손수건을 틀러 방에 가두어놓는다 못해 건물 3층에서 뛰고 내던지는 범죄행위를 사슴지 않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잊지 않는 세상에 눈을 뜨고 보면 야만적인 어린이학대행위는 세상에 태어나고 병들어 가는 남조선의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자식에게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뜨겁고 애정어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순결하다.  
자식을 위해서는 천금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려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이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황금도 구두의 인간중요사상이 낳은 온갖 부정부리와 사회적이 판을 치고있어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대우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한 박근혜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서 《책임보육정책》, 《무상보육확대》니 뭐니 하고 허튼 나발을 불어댔지만 오히려 어린이학대가 더욱더 유심해져 감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이 바로 오늘 남조선현실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보육원들이 수백명의 나이 어린 학생들을 태

운 력적선 《세월》호를 백주에 차디찬 바다북쪽에서 치막아놓기도 구원을 애라게 해주는 부모들의 처절한 절규마저 외면한채 7시간동안이나 선풍으로 떠돌아다니는 박근혜당이요보던 어린이학대행위는 악마로 생각할수밖에 없다.  
웃음이 끊어지야 아베들이 맑다고 박근혜당의 대담들이 그렇게 대담했던 남조선에서 어린이학대행위는 언제 가도 없어질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 성행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는 덮어두고 동족을 도해하기 위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어지러움도 두개기 천다고 깃을 수 없는 죄를 지은채 자기 조국에서 배반하고 기생기신 갖이간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악담하는 박근혜당이요보 동족대립에 미쳐도 어떻게 미친 정신병자, 가소롭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중요이 아닐수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우리 당의 슬로고 후대사상, 미래사상에 떠맡겨져 대적인 락사소 유지원, 육아

원과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에서 세상에 부의운것없이 자라나고 있다.  
우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애기궁전에서, 자라나면 소년궁전에서 국가적인 보살핌속에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나라의 왕으로 떠맡겨지고 있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과 가정, 사회적학대에도 꽃말음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가는 남조선어린이들의 편이한 두모습은 민족의 정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의 사회의 사랑과 보살핌에 있어야 할 어린이들이 고통과 생육의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인권불모지, 개간은 세상이 남조선에서 어린이학대를 막자면 민의의 왕호인 박근혜역적정권을 찍어내야 할 것이다.  
남조선의 전체 어머니들과 여성들은 모든 불행의 최강인 박근혜정권을 단호히 무너뜨리는 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천하를 너를 지체없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더러운 시금장에 치막아넣어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극적인 소식들에 비낀 판이한 두 현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흥남 뱃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위업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휘하여 허루벌루 강성국가로 일떠세우으로써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한눈에 명백히 만들어놓았다.》  
다말고도, 다대반으로 변이하는 내 조국에서는 남마다 새대로는 기쁨넘친 소식들이 전례되고 있다.  
뜻깊은 올해 1월 1일 천도개벽된 과학의 섬 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건설기수가 완비하게 구현된 21세기 첨단과학의 대전장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관회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졌는가.  
각 도들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과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정양중등학생 준공식 소식은 전례적 온 나라를 감격과 환희에 잠기게 했다. 함흥과학사립립 1단계준공식이 진행되고 지식인들이 새 집에 입주한 소식, 새로 개편된 만경대소년단 애영소 준공식이 진행되며 이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속에 적어 야영이 시작된 소식과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교육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준공식소식에 접하여 천만국민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과 더욱 좋아질 래일 대한 확신으로 가슴 들끓어갔다.  
위대한 어머니당 7차대회에 배후추진원이 드리는 영웅적 위훈의 창조물인 백두산영웅년 3호발전소 준공식과 지역적 야금공업발전의 준흔한 도대로 일떠선 황해철원합기소 주체적, 현대화대상들에 대한 준공식, 규격제육인종합식공장과 평양체육기체종합준공식소식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인민을 위한 우리 당정책에 대한 절대적신뢰와 당을 따라 영리한 혁명의 한걸음 반함없이 걸어갈 무지와 열정으로 가슴 불타게 하였다.  
관회의 소식은 남마다 계속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상,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날때 짧은 시간에 김정은영양망치종합대학 개방원생생각기과 훌륭히 꾸려지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소식, 인민대학습성공장과 미래사상, 종합봉사기지가 새로 건설된 소식 그리고 조선인민군

제 122호양보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되고 평양야구공장이 우리 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 준공식과 평양야구종합병원, 통안산비누공장이 새로 일떠서고 있다는 소식...  
물주목 세상에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내조작을 같이 내내려갈 각오와 의지로 신장을 불어넣는 소식들이었다.  
하지만 남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한나와 같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서울의 한 인적이 사망할 하면서 빈 몇몇은 돈으로 병에 걸린 딸들을 부양해오다가 딸을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되자 딸을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되자 딸을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 30대의 한 여성이 밭을 갈다가 밭이 없어 귀에 4살짜리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15층이바드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그리고 칠순이 된 할머니가 살기가 어려워 목욕을 하고 자살했다는 소식과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로동자가 귀머지기는 이비정용 용서해달라며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앞길에 구린물레는 내대학성이 가늘어졌다고 보고 뛰어오르는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배울의 꿈을 버리고 세상을 하직하였다는

기막힌 사연은 그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었는가.  
그뿐이 아니었다. 세계를 경악시킨 《세월》호태상사와 경성상도 경주제육관공전공전공전공, 서울에서 하필도전공전공전공전공, 전라남도 정선군 로양병원화재사고, 아시안항공회사소속 여객기착륙사고 등 지상과 지하, 하늘에서 괴리를 품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들을 두고 《사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 등 남조선주민들속에서 떠돌아다니는 불만과 하소연의 목소리들...  
떨악한 로동행진으로 하여 이 중앙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를 전하는 소식은 또 얼마나 가슴저미게 했는가.  
경제적리유민을 추구하는 기업주들이 초보적인 로동보호, 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죽음의 위험장소에 로동자들을 마구 내몰고있어 남조선에서 일상을 이치며 넘고있는 《로동자들의 무덤》,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남말들, 남조선 전지역적으로 신명떨어지쳐서 하루평균 240여명...  
지금 남조선에는 살인적인 로

### 반미계급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은분광산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층에서 남조선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놈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적적인 일시적회회시 광산에서 감행한 현인공노할 민행자로를 가지고 만미계급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총원했던 그 나날 광산에 기여는 인간백성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놈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야수적방법을 총동원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수많은

학살하였다.  
특히 광산침범을 인민에게 숨겨놓고 후외의 길에 올랐던 로동자들을 제로한 현수놈들은 기계들을 강추어본 것을 대라고 하면서 통풍기와 총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무장시켰다. 하지만 로동자들은 조급도 감하지 않고 눈물을 추상같이 단죄하며 끝까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악에 반한 인간백성들은 그들을 고문하여 겨우도 메달아놓지 않고 시퍼렇게 날이 선 칼로 가죽

을 벗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상처지 않아 원수놈들은 그들의 머리에 총탄을 마구 쏘아대었다. 이것은 결코 지나간 옛일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갔지만 그날에 율러던 애국자들의 피는 절규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날광도 미제와 계급적원수놈들에 대한 천재의 복수의 불길을 세계에 지주시키고 있다.  
로동동원원 심 읍



살인귀 미제야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진천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직음

본사기자 김지곤

